

2019. 8. 22

대외 수요 부진, 무역 이슈 등이 수출 회복 지연 요인

강봉주(3705-6052)

□ (수출) 8월 수출 중간집계(1~20일) 결과 반도체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부진 지속.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4분기 일부 회복이 예상되나 불안요인 상존(Barclays, BoA 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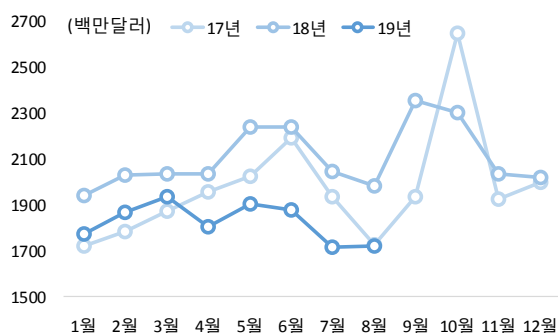
○ 8.1~20일 수출은 일평균 1.7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-13.3% 기록(그림 1)

- (품목별) 반도체(-29.9%, yoy), 석유제품(-20.7%) 부진이 지속. 선박(+179.7%), 무선통신 기기(+57.5%), 승용차(+8.0%) 등이 일부 상쇄
- (지역별) 중국(-20.0%, yoy), 미국(-8.7%), EU(-9.8%), 일본(-13.1%) 등 주요국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. 베트남(+8.7%), 싱가포르(+47.8%) 등은 증가

○ 조업일수 고려 수치는 전월보다 소폭 나아졌으나(-16.2%→-13.3%),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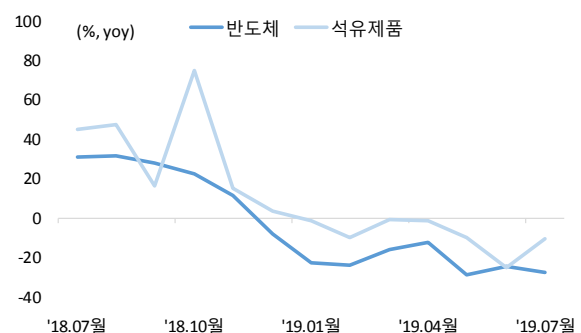
- 변동성이 높은 선박을 제외하면 전년동기 대비 -16% 대의 수출 감소 흐름 지속. 단기 반등의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(BoA)
- 반도체 수출의 마이너스폭이 큰 것은 상당 부분 기저효과에 기인(Citi)하나, DRAM 가격이 6월말 이후 반등한 뒤 재차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(Barclays)(그림2)

〈그림1〉 우리나라 1~20일 일평균 수출금액



출처: 관세청

〈그림2〉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 추이(yoy)



- 석유제품 수출(-15.6%→-20.7%)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 부진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(Goldman Sachs)
- 일본 수출 규제가 금번 통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
 -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효(8.28일) 전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수입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21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서는 유의미한 움직임 미관찰(Goldman Sachs, Citi)
 - 對日 일평균 수입은 7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(7월 1.68억달러 → 8월 1.69억달러).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지속(7월 -17.1% → 8월 -8.3%)
 - 한편 일부 기관은 한국의 對日 수출 감소폭 확대(-9.5%→-13.1%, yoy)에 한일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, 對日 수출은 이미 올해 1월부터 기저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(yoy)를 기록 중인 점을 감안할 필요
-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4분기부터 수출의 점진적 회복을 조심스럽게 예상. 다만 마중 무역 갈등과 한일 수출 규제 등이 회복을 지연시키는 불확실성 요소(BoA)
 - 주요국向 수출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, 대외 수요 회복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(Barclays)